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불순종 함으로 몰락해 가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왕국은 앓수르에 (주전 722 년) 점령되어 포로가 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주전 586 년) 점령되어 포로가 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신다. 우리는 왕국의 몰락과 왕들의 생활 그리고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자세 즉 생활을 재조명하여야할 것이다.

- I. 명칭: 열왕기상에서 말함과 같다.
- II. 저자: 탈무드에서는 예레미야 라고 하지만 저자는 미상이다. 포로생활 이후에 기록되었다.

III. 내용

통일된 찬란한 왕국이 몰락해가는 연속적인 역사의 기록이다. 부패한 왕국은 쇠퇴해 가며 종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어 다른 민족이 포로가 되고 만다. 죄악이 컸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이 부상해 나타나고 있다.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윗의 승리	바벨론에게 패배
솔로몬의 영광	여호야긴의 수치
순종 (축복의 시작)	불순종 (저주로 끝남)
성전건축	성전파괴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외면

열왕기하의 기본 구성은 분열왕국 (1-17 장) 과 유다왕국 (18-25 장) 으로 나눌 수 있다. 분열왕국은 다시 엘리사의 사역 (1-8 장), 열왕의 통치 (9-16 장), 이스라엘의 멸망 (17 장) 으로 나눈다. 분열왕국에서는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 준다. 이는 131 년의 역사이고 (B.C.853-722)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앓수르에 의하여 주전 722 년에 망한다.

두번째 유다왕국은 히스기아의 통치 (18-21 장), 열왕의 통치 (22 장-24 장), 유다의 멸망 (25 장)으로 구분된다. 이는 죄의 악순환과 유다의 멸망이다. 이는 또한 156 년의 역사이고 (BC 715-560) 으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주전 586 년에 멸망한다.

IV. 열왕기하의 주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과 유다는 갖가지의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으로 타락해져 갔고 그 결과 치욕적인 적국의 포로가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결과이다.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축복의 관건이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왕국이 포로가 되는 고통의 결과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 원인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 (1)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수 많은 선지자들을 세웠으나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을 자초한다.
- (2) 국가 및 시대의 전반적인 타락은 영적 심지가 깊지 않은 자들의 죄의 악순환과 심화를 자초한다.
- (3)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타락후 심판이 곧 닥치지 않자 계속 악을 행함으로 멸망한다.

(4) 대부분의 왕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확장하려다가 실패한다.

(5)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파견하셔서 심판을 경고하신다. 회개할 때에는 회복과 구원을 주신다.

## V. 열왕기하에 나타난 그리스도

(1) 유다왕국을 통한 다윗 언약의 보존: 다윗의 왕국이 영원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된다.

(2) 선한 선지자와 선한 왕들

## VI. 핵심단어, 핵심 절, 핵심 장

(1) 핵심 단어: 포로와 추방 (Captives and Exile)

(2) 핵심 절 : 17:22-23; 23:27

(3) 핵심 장 : 25 장

분열왕국시대의 팔레스틴

